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은 **WHO(세계보건기구)**, **세계은행** 등 국제기구에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

* **필수 건강서비스 보장 수준**: WHO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개발한 보편적 건강보장(UHC: Universal Health Coverage) 평가 지표에 따르면, 우리나라는 *필수 건강서비스 보장* 부문에서 **85.7점**을 기록해, 전 세계 평균(66점)이나 동아시아(77점), 유럽(77점)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. 이는 한국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폭넓게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.
* **재정적 보호 측면**: 반면, *재정적 보호*(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)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다만, 이 부분은 국제 통계자료의 한계와 각국의 제도 차이로 인해 단순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.
* **국제적 롤모델**: WHO와 세계은행 등은 한국 건강보험제도를 **개도국의 중요한 롤모델**로 간주하고, 정책 개발과 경험 공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한국의 건강보험 운영 경험과 사례는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벤치마킹되고 있습니다.
* **기대수명, 건강지표 우수성**: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가 기대수명이 높고 비만율이 낮은 등 우수한 보건의료 지표를 보이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K-건강보험의 효과와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.
* **국제 협력 및 ODA**: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, ODA(공적개발원조) 활동,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등을 통해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이 글로벌 리더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.

정리하면, **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은 WHO 등 국제기구로부터 필수 건강서비스 제공 수준이 매우 높고, 개도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, 재정적 보호 측면에서는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**.